

癡菴 申奭鎬 선생에 관한 추억의 片鱗

— 나의 韓中關係史研究에 얽힌 가느다란 學緣 —

朴 元 熒*

癡菴 申奭鎬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내가 고려대학교 사학과 2학년 학생 때였을 게다. 아마 선생의 「한국근세사」 강의실에서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큰 키에 거무스레한 긴 얼굴, 검은 색의 뿔 테 안경과 조금 벗겨진 앞이마, 그리고 유난히 두툼한 아랫입술이 인상적이었던 치암 선생은 소박하면서도 근엄한 학자의 풍모를 지닌 분이셨다. 따져 보니 이 무렵 치암 선생의 연세는 바로 지금의 내 나이 정도였는데, 그 당시 우리들의 눈에는 벌써 ‘元老’ 학자로 비쳐졌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은 요즈음 사람들 보다 대체로 한 10년 더 곱늬어 보였던 것 같다. 아니 어찌면 지금 내가 아직 그다지 늙지 않았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지도 모르지만 ….

내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학군단 출신 육군소위로 입대한 해가 1966년 2월이고, 치암 선생이 21년 간 재직하시던 고려대학을 떠나 성균관대학으로 옮겨 가신 때가 같은 해 8월이니, 나는 고려대학에서 치암 선생에게 배운 마지막 세대가 되는 셈이다. 치암 선생의 후임으로 姜萬吉 교수가 부임해 온 것은 그 이듬해였다. 崔永禧·朴性鳳·車文燮·金容燮·姜萬吉 선생 등 치암 선생의 초기 제자 그룹과는 달리, 보다 연령차가 큰 우리 세대는 선생과의 사이에 師弟 간의 아끼자기한 교분이 생기기 어려웠다. 風化된 나의 기억 속에 박혀 있는 치암 선생의 전형적인 외모는, 어찌된 셈인지 오버코트를 입은 채 강의하시던 모습이다.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

*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던 시절이라 겨울철에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매서운 西館 강의실에서, 코트를 입지 않고는 강의하기가 너무 추웠던 탓이리라.

당시에는 교수가 대학노트에 빼곡 적어 놓은 강의안을 한 시간 내내 읽어주면, 그것을 학생들이 자기 노트에 받아 적는 방식의 지루한 강의가 많았다. 예전에는 치암 선생의 강의도 그러했다고 들었지만, 적어도 이 무렵 치암 선생은 이미 ‘받아 적기’ 식에서 탈피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치암 선생의 「한국근세사」 강의에서 정작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강의의 줄기보다 일사구에 해당하는 몇 토막의 애것거리뿐이다. 이를테면 그날 아침에 누군가가 선생 댁으로 전화를 걸어 와 『土亭秘訣』의 저자로 이름난 李之菡의 묘를 찾아냈다고 흥분하더라는 식의 逸話 따위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결코 모범 학생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또 강의의 어떤 대목이었던지는 잊었지만 明宗年間に 眉巖 柳希春이 함경도 鍾城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부인 宋氏가 남편을 찾아 마친령에 이르러 읊었다는 悲感어린 詩를, 마치 문학청년과 같은 표정으로 소개해 주시던 모습은 오히려 기억에 생생하다. 이 글을 쓰면서 그 詩의 譯文을 내 나름 대로 다음과 같이 한번 옮겨 보았다.

| | |
|--------------------------|---------|
| 가고 또 가서 마침내 마친령에 이르니, | 行行遂至摩天嶺 |
| 동해 바다 가이 없고 鍾城 땅은 평지로세. | 東海無涯鍾面平 |
| 만 리 길을 아낙네가 무슨 일로 왔던고, | 萬里婦人何事到 |
| 三從의 뜻은 무거우나 내 한 몸은 가벼우리. | 三從義重一身輕 |

치암 선생은 우리들이 쉽게 근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셨으면서도, 사실 알고 보면 假飾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참으로 소탈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였다. 특히 강의 도중에 우스운 얘기를 할 때면 막상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보다 선생께서 먼저 어깨를 들썩이며 터트리는 “이히히히” 하는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가히 일품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엽기적’인 그 웃음소리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크게 웃지 않고 배길 재간이 없었다. 흡사 친구를 골려주고 나서 재미있어 하는 ‘惡童’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고 묘사한다면, 혹시 선생께 실례가 되는 표현이 될까? 우리 학생들이 두고두고 선생을 흉내 내는 표적이 된 그 天衣無縫의 웃음소리는, 열 마디의 말이나 글보다도 치암 선생의 인간적인 면모를 한 찰나에 남김없이 드러내어 주는 것이었다.

이 무렵 고려대학교에서는 사학과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史叢』이란 학술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주로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원고를 받아 온다든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배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학생회의 주된 임무였다. 나는 3학년 때 양교석 군(현 한일고 교장), 송인서 군(현 강원대 교수) 등과 더불어 제9집을 간행하는데 일조를 하였는데, 뒤표지 안쪽에 실려 있는 5명의 편집위원 명단 속에는 내 이름도 들어 가 있다. 지금은 대학원생들도 맡기 어려운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대학생들이 맡았다는 사실은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학생회가 『사총』 편집을 맡던 방식은 제11집으로 끝나고, 이후에는 졸업생들의 모임인 고려대학교 사학회가 이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 『사총』의 誌齡이 벌써 제58집에 이르고 있으니, 아마도 『사총』은 국내에서 대학 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중에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잡지일 것이다. 그런데 일찍이 1955년 당시 학생대표였던 宋甲鎬 선생이 재정을 맡고 대학원생 李光周 선생이 편집을 맡아 창간을 준비해 오던 이 학술지에, 『史叢』이란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 바로 치암 선생이시다. 創刊辭는 金成植 선생이 써 주셨고, 任昌淳 선생이 題字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4학년 학생이었을 때 치암 선생과 김준엽 선생 두 분의 인솔 하에 경주와 해인사 일대의 고적답사를 다녀 온 추억도 있다. 1-2년 전의 답사 때 찍은 사진에서는 모두 웃고 있는 표정이었으나, 졸업을 앞둔 우울한 시

절이었던지 이때 찍은 사진 중에는 웃고 있는 내 모습의 사진이 한 장도 없다. 색 바랜 옛 사진을 들여다보니, 캡을 쓰고 계신 김준엽 선생과 중절 모를 눌러 쓴 치암 선생은 모두 버버리 코트 차림으로 한껏 멋을 내고 계시다.

1970년에 나는 臺灣으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이라면 으레 미국이나 프랑스를 연상하는 친지들로부터 “왜 하필 대만으로 유학을 가느냐?”는 편견 비슷한 질문을 들어가며 서울을 떠난 나는 臺灣大學 대학원에서 明代史를 전공하였다. 석사논문의 제목은 『洪武建文年間明與朝鮮的關係』로서, 明代初期의 韓中關係가 주제였다. 이 때 수집한 연구자료 가운데 당연히 치암 선생의 「조선왕조 개국당시의 대명관계」라는 논문이 들어 있었다. 이 논문은 선생이 이끌고 계시던 국사편찬위원회가 일제 치하에서 왜곡되었던 歷史像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1959-60년에 발간한 『국사상의 제문제』 시리즈의 제1집에 실려 있었다. 일본학자 末松保和의 논문 「麗末鮮初における對明關係」를 토대로 하면서도, 그 시각을 비판한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었다. 나는 논문 속에서 치암 선생의 이 글을 인용하기는 하였으나, 나름대로 치암 선생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사실 조선초기의 대명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史料는 워낙 한정되어 있으므로, 석사논문을 쓰는 기간에는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을 몇 차례나 꼼꼼하게 읽어야만 하였다. 지금은 『국역 조선왕조실록』이 완간된 지도 10년이 된 데다, 최근에는 CD-ROM까지 나와 있어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기가 여간 편리하지 않다. 그러나 그 당시는 축쇄영인본 『조선왕조실록』을 한 글자 씩 짚어 가며 읽어 내려가곤 했다. 손때를 묻혀 가며 내가 뒤적이던 『조선왕조실록』이 또한 치암 선생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시던 1955-58년에 48책으로 영인 간행한 것이다.

내가 대만에서 귀국한 때는 1974년 1월 8일. 날짜까지 확실히 기억하는 까닭은, 이 날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되었던

날이기 때문이다. 3월부터 고려대학 사학과에서 강사생활을 시작하며, 석사 논문에서 다루었던 몇 주제를 개별 논문으로 확대시켜 차례로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그 첫 논문 「明初 文字獄과 朝鮮表箋問題」를 게재한 학술지가 역시 치암 선생이 1958년에 조직한 韓國史學會의 『史學研究』이었음도 우연한 일만은 아니다. 조선초기의 ‘表箋問題’라는 것이 明太祖가 일으킨 文字獄의 일환으로 발단하였다는 점을 고증한 첫 논문 원고문지를 들고 당시 신문로에 있던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아가 사학과 동기생인 강영철(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군과 함께 당시 崔永禧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에게 인사를 드렸던 기억도 있다. 이미 조선시대의 對明關係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당시 편사실장 李鉉淙 선생이, 별 말씀도 없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나의 원고를 이리저리 앞뒤로 몇 차례나 뒤적이던 생각이 난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마도 내 원고 속에 자기 논문이 인용되어 있는가를 찾아보았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따름이다.

나의 두 번째 논문은 「明初 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表箋問題」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역시 치암 선생이 앞의 글에서 간략히 언급한 시각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즉 요동공벌계획과 표전문제는 先後關係가 『태조실록』에 모호하게 뒤바뀌어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조선의 요동공벌 가능성을 먼저 우려한 明太祖가 마침 발생한 표전문제로 조선에 위압을 가한 것이라는 점을, 같은 『實錄』 속의 다른 記事를 활용하여 고증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白山學報』에 게재하게 되었는데, 치암 선생은 바로 1966년에 창립된 白山學會의 주요 발기인이시기도 하다. 이어서 鄭道傳의 주장과 趙浚의 반론을 중심으로 요동공벌계획의 실체를 구명하려고 시도한 세 번째 논문 「조선초기의 요동공벌논쟁」을 『韓國史研究』에 게재하였는데, 1967년 발족한 韓國史研究會 역시 치암 선생이 초대회장을 맡으신 학회이다. 이렇게 나는 이 무렵 동양사연구자이면서도 치암 선생의 학문적 울타리 속에서 맴돌고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1975년부터 3편의 논문으로 발표를 시작한 나의 <조선초기 대명관계> 연구는 80년대에 2편, 90년대에 2편,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며 가느다랗게 이어져 갔다. 더욱이 80대 이후 나의 연구관심이 韓中關係史에서 中國史로 옮겨 가는 바람에, <조선초기의 대명관계>에 관한 연구를 좀처럼 마무리 짓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국사편찬위원회가 신편 『한국사』를 간행할 계획을 세우면서, 1991년경에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 15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초기의 대외관계 : 명과의 관계」 2편의 집필을 나에게 의뢰해 왔다. 이미 연구관심이 바뀌었으면서도 내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이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오직 이 연구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지을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선초기의 대명관계>에 관한 연구를 한 책으로 엮어 내지 못한 채, 연구관심이 中國社會史로 옮겨 가 있었던 나는 1993년에 연구년을 얻어 北京大學에 1년간 교환교수로 있는 동안, <明清時代 徽州의 宗族>에 관한 연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2000년에 두 번째 연구년을 얻어 하바드대학에서 1년을 머무르는 기간에는, 그동안의 <明清時代 徽州의 宗族>에 관한 연구를 한 책으로 엮어 출판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거의 이르렀다. 첫 연구주제였던 <조선초기의 대명관계>에 관한 연구를 아직 출간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귀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이것부터 먼저 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귀국한 직후부터 옛 원고의 정리를 서둘러, 이듬 해 『明初朝鮮關係史研究』라는 書名으로 一潮閣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연구기간이 마냥 늘어져버린 어쭙잖은 연구성과이긴 하지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나의 문제의식은 사실 末松保和 선생과 李相栢 선생, 그리고 癡巖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1974년 이래 나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치암 선생을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 對明關係의 성격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의 학술적인 인정만을 꼭

받고 싶은 바램을 갖고 있었다.

지금도 그러한 풍속이 아직 남아 있지만, 70년대에는 새 해가 되면 졸업생들이 세배를 드리기 위해, 삼삼오오 무리지어 선생님 댁으로 다니는 것이 상례였다. 동양사 전공이라고 해서 동양사 선생님께만 세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사와 서양사 선생님께도 세배를 다녔으므로, 그 날 하루는 세배 다니느라 온 종일 버스나 택시를 갈아타며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야 하는 형편이었다. 어느 해는 두 분 선생님 댁에서 떡국을 먹어야만 할 경우도 있었고, 어느 해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 떡국 한 그릇도 못 먹은 채 하루 종일 쏘다니는 적도 있었다. 대개의 경우 정릉에 있던 치암 선생 댁에 먼저 들렀다가 성북동의 鄭在覺 선생 댁을 거친 다음, 명륜동에 있던 金成植 선생 댁과 金俊燁 선생 댁으로 다니는 식이었다. 정릉에 있던 치암 선생 댁의 이층 서재에서 세배 절을 올린 다음, 잠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지만 도무지 논문 얘기를 꺼낼 분위기는 아니었으므로, 세배 드리러 갈 때마다 다음에 따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뵈어야지 하고 혼자 다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원체 숫기가 없었던 나는, 선생께 전화 드리는 일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되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1976년 9월에 나는 부산대학에 전임강사 자리를 얻어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채 2년이 안 된 1978년 3월에는 일본의 東京大學으로 다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3년이 지난 후 고려대학 사학과로 부임하기 위해, 1981년 2월말 東京으로부터 귀국하였다. 귀국하고 난 후 며칠이 지나서야, 나는 치암 선생께서 바로 한 달 전에 작고하셨다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끝내 나는 <조선초기의 대명관계> 연구에 대한 치암 선생의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1974-75년 사이에 선생을 찾아뵈지 못 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고, 이는 나에게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다.

최근에 나는 <15세기 조선선비의 중국견문록>이라고 할 수 있는 崔溥『漂

海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먼저 최부『표해록』의 여러 版本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 6종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판본은 최부의 외손자인 柳希春이 주도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두 판본은 한국에서는 所藏하고 있는 곳이 없고, 일본 京都의 陽明文庫와 神奈川縣의 金澤文庫에만 각각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2002년에 金澤文庫를 방문하여 디지털 카메라로 金澤文庫本을 어렵사리 찍어왔고, 陽明文庫本은 이듬해에 京都大學 木田 교수의 도움으로 역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CD를 우송 받았다. 16세기 조선사회를 연구하는 데 빠트릴 수 없는 귀중한 史料인 유희춘의 『眉巖日記草』에는, 유희춘이 평안도관찰사와 전라도관찰사에게 각각 부탁하여 『표해록』을 4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간행한 경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희춘의 부탁을 받고 간행에 협조했던 지방관들의 행적을, 지금 나는 『宣祖實錄』에서 찾아내어 『미암일기초』와 맞추어 보고 있는 중이다. 몇 년 전에 東京大學으로부터 성균관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일본학자 宮嶋博史의 표현을 빌리자면, “16세기 日記史料로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료인 『미암일기초』도 또한, 치암 선생이 젊은 시절에 교정을 맡아 간행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 『미암일기초』 5권을 뒤적이면서 내가 더욱 情感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치암 선생은 일찍이 “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희생된 사람”(『영남일보』 1976.1.10. 대담기사)이라는 자탄을 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또 “근 30년 동안 조선사를 했지만, 겨우 기초 작업 밖에 못해 놓은 것”(『독서신문』 1976.6.27. 대담기사)이라고 자신의 업적에 대해 엄격하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린 일도 있다. 선생께서 더 잘 할 수도 있었던 연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살펴 볼 때, 치암 선생의 연구업적이 같은 제1세대의 학자들 중에서 결코 뒤쳐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생께서 史料編纂에 그 많은 시간과 정력을 빼

앗기지 않았던들 더욱 알찬 연구를 할 수 있었으리라는, 항상 모자라게 느껴지기 마련인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학자로서의 끊임없는 渴症을 표현한 말씀이리라.

세태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메말라 가는 것은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先行 연구자가 이룩한 업적을 가위질하여 모은 다음 알팍한 立論으로 논문을 엮어 내면서도, 자기 연구의 독창성을 강조하기 위해 先學의 업적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낮 두터운 것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역사연구에 토대가 되는 사료의 수집·보존과 편찬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은 ‘연구업적’이 아니라고 폄하하기조차 한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사료의 수집·정리·보존과 편찬이 시답지 않은 ‘연구’보다, 後學들에게는 몇 배 값어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척박한 돌밭을 일구는 개척농민의 역할과도 같은, 기초 사료의 정리와 편찬이 없었던들 다음 세대의 농민들이 과연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인가?

周恩來가 자주 인용하였던 중국 속담에 “우물물을 마실 때에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의 노고를 잊지 말라(吃水不忘挖井人)” 말이 있다. 그렇다! 일제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광복 후 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치암 선생은 메마른 땅에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깊은 우물을 파서, 그동안 목말라 했던 수많은 한국사연구자들에게 맑은 샘물을 마시게 해 준 분이 아니셨던가!